



전북, 클럽월드컵 5위 확정 전북 현대의 김신욱이 14일 일본 오사카 시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마멜로디 선다온즈(남아프리카공화국)와의 2016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5-6위전에서 헤딩골을 시도하고 있다. 전북은 김보경-이종호-김신욱의 릴레이골과 상대의 자책골로 4-1 승리를 거두며 상금 150만 달러(약 17억5300만원)를 챙겼다. /연합뉴스

# KIA 외야는 전쟁터... 내야는 무주공산



외야, 최형우·나지완·김주찬 등 주전 경쟁 치열

내야, 강한울 이적·박찬호 입대...백업 요원 부족

유격수를 중심으로 한 총총한 내야 구성이 '호랑이 군단'의 숙제다. 이번 스토브리그를 통해 KIA 타이거즈의 내·외야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외야는 치열한 전쟁터가 됐다. FA(자유계약)를 통해 나지완이 잔류했고, 최형우가 유입됐다. 여기에 생애 첫 골든글러브를 품은 김주찬의 재발도 눈조롭다. 올 시즌을 통해 톱타자 후보로 명함을 내민 노수광에 독보적인 수비의 김호영 등 신예가 원들도 있다.

올 시즌과 스토브리그를 통해서 외야 전력에 눈에 띄게 두터워졌지만 내야에는 전력 출혈이 있었다. 김선빈이 상무에서 제대해 돌아왔지만, 지난 2년 김선빈을 대신해 유격수 역할을 담당했던 강한울이 최형우의 보상선수로 삼성으로 이적했다. 강한울을 대신해 유격수 자리에 섰던 박찬호·윤완주 등 내야자원들의 군입대도 예정됐다. 결국, 경찰청에서 낙방한 고영우가 1년 더 뛰는 것으로 내야 교동정리가 이뤄졌다.

지난 마무리 캠프를 통해 신인 선수들의 유격수 테스트가 진행됐다. 잠재력과 열정으로는 합격점을 줄 수 있지만 1군의 벽은 높고 경험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당장 가용 자원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확실한 백업 선수가 없는 만큼 김선빈의 어깨가 무거울 2017시즌. 유격수를 중심으로 한 내야 구성이 중요한 숙제가 됐다. 한편 박찬호와 윤완주는 현역 입대를 앞두고 있다. 박찬호는 오는 1월 31일 6사단을 통해

입대한다. 강한울의 이적으로 박찬호의 잔류가 예상됐지만 현역 입대가 결정됐다. 박찬호는 "빨리 군복무를 끝내고 출가 분한 마음으로 야구를 하고 싶다"며 "스프링 캠프에 맞춰서 나도 입대를 하게 됐다. 캠프를 가는 마음으로 갈 것이다. 몸도 많이 키우고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완주는 독도경비대원으로 변신한다. 2월 9일 논산 육군훈련소로 향하는 윤완주는 독도에서 군복무를 하게 된다. 윤완주는 "이왕 해야하는 일이면 뜻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원을 하게 됐다. 2월 9일부터는 나라의 안전을 지키겠다(웃음)"며 "건강한 모습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FA 차우찬, LG와 4년 95억 계약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리그 최고의 좌완 투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차우찬(29·사진)을 품에 안았다. LG는 14일 FA(자유계약) 좌완 투수 차우찬과 4년 총액 95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계약금 55억원에 연봉 10억원의 조건이다. 역대 FA 계약금액으로는 최형우(4년 100억원), 박석민(4년 96억원)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대형 계약이다. 투수 FA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올 시즌 뒤 삼성 라이온즈에서 FA로 풀린 차우찬은 이번 FA 시장에서 김광현(28·SK 와이번스), 양현종(28·KIA 타이거즈)과 더불어 투수 '빅3'로 꼽혔다. 김광현이 SK 잔류를 선택하고, 양현종 역시 KIA 잔류가 유력해진 상황에서 그동안 거취가 불분명했던 차우찬은 해외 진출의 꿈을 접고 삼성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 삼성은 차우찬의 잔류를 최우선 목표로 잡았으나 KIA로 동지를 옮긴 최형우에 이어 팀 내 핵심 FA 2명을 모두 잃게 됐다. 삼성은 최근 차우찬에게 제시한 금액까지 공개했다. 총액 100억원을 웃도는 계약 조건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다. 구단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메시지를 팬들에게 전하려는 의도였으나 정작 차우찬은 발표액으로는 100억원을 밑도는 계약 조건에 LG와 손을 잡았다.



LG는 데이비드 허프와 헨리 소사로 이어지는 외국인 '원투펀치', 우완 류제국까지 리그 정상급 선발 로테이션을 꾸릴 수 있게 됐다. 차우찬은 2006년 삼성 라이온즈에 2차 1라운드 7순위로 입단해 11시즌 동안 353경기에 등판해 70승 48패 1세이브 32홀드 평균자책점 4.44를 기록했다. 올 시즌에는 24경기에 등판해 152.1이닝 동안 12승 6패 평균자책점 4.73을 남겼다. 차우찬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원소속구단)

삼성이 마지막까지 좋은 제안을 했고 메이저리그 구단도 영입 제의를 했다. 감사하면서도 괴로웠다"고 말했다. 차우찬은 또 "국의 리그에서 뭘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곳에서 뛰는 상상도 했다"면서도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4년 동안 더 기량을 키워 다시 도전하겠다는 마음으로 LG와 계약을 택했다. FA 자격을 얻은 뒤 LG가 꾸준히 관심을 보였다. 여러 조건을 고려해 LG와 계약했다. LG가 더 좋은 성적을 내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2017 프로야구 3월 31일 개막

KIA, 대구서 3연전

프로야구 2017시즌이 3월 31일 시작된다.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가 14일 2017년 정규시즌 경기일정을 발표했다. 정규시즌은 금요일인 3월 31일 개막해 일요일인 9월 17일에 종료된다. 팀간 16차전(홈·원정8씩, 팀당 144경기)을 치른다. 총 720경기가 진행된다. 개막전은 2015년 팀 순위에 따라 1-6위, 2-7위, 3-8위, 4-9위, 5-10위의 대전으로 편성됐으며, KIA는 대구로 건너가 삼성과 개막 3연전을 치른다. FA를 통해 유니폼을 갈아입은 최형우는 친정팀을 상대로 공식적인 KIA 데뷔전을 치르게 됐다. 대구 외에 잠실(한화-두산), 마산(롯데-NC), 고척(LG-넥센), 문학(kt-SK) 등 5개 구장에서 일제히 개막전이 치러지며 2017시즌이 시작된다. 대구 원정으로 새 시즌을 여는 KIA는 4월 4일 안방으로 돌아와 홈 개막전을 치른다. 상대는 SK다. 한편, 어린이날 경기는 격년제 편성 원칙에 따라 두산, 넥센, 한화, 롯데, NC의 홈 구장에서 개최된다. 올 시즌 안방에서 어린이날 경기를 치른 KIA는 내년 5월 5일에는 롯데의 안방인 사직으로 건너간다. 한편 올스타전은 7월 15일(토)에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한국, 월드태권도 팀선수권 혼성팀 우승

한국이 올해 처음 도입된 월드태권도 팀선수권대회 남녀 혼성팀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대표팀은 13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사르히지 올림픽경기장에서 열린 2016 세계태권도연맹(WTF) 월드태권도팀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남녀 혼성팀 경기 결승에서 러시아를 9-7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1라운드에서 6-3으로 앞선 한국은 2라운드 들어 경기가 쟁쟁해 6-5로 쫓긴 뒤 3라운드 초반에는 6-6 동점까지 허용했다. 하지만 인교돈(한국가스공사)이 상대를 연달아 성공해 승리를 안겼다. 이번 대회 혼성팀 경기에는 한국, 러시아, 미국, 벨기에가 참가했다. 한국은 벨기에와 첫 경기에서는 15-6으로 이겼다. 올해 처음 정식종목으로 치른 혼성팀 경기는 세계연맹이 2020년 도쿄 올림픽 세부종목 추가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선택한 종목이다. /연합뉴스

# UFC 여자부 페더급 신설 내년 2월 홀름 첫 타이틀전



UFC가 여자부 경기 인기에 힘입어 페더급(145파운드·약 65.8kg)을 신설하기로 했다. 페더급 첫 경기는 여자 밴더급 전 챔피언 홀름(35·미국·사진)과 저메인 데란다미에(32·네덜란드)의 페더급 타이틀전이다. UFC는 14일 ESPN 스포츠센터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홀름과 데란다미에의 여자 UFC 페더급 초대 챔피언전은 내년 2월 12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바클렌이스 센터에서 UFC 208의 메인 카드 경기로 열릴 예정이다. 이제까지 UFC 여자부에는 체급이 스트로급(115파운드·약 52.2kg)과 밴더급(135파운드·약 61.2kg) 둘뿐이었다. 신장 170cm가 넘는 여자 선수는 감량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동안 꾸준히 체급 신설을 UFC에 건의해왔다. /연합뉴스

# 우즈, 내년 2월 제네시스 오픈 출전

북극권을 치른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내년 2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오픈에 출전한다. 허리 부상을 치료하고 이달 초 이벤트 대회 히어로 월드 챔피언십에서 복귀전을 치렀던 우즈는 내년 2월 16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제네시스 오픈에 출전한다는 일정을 14일 밝혔다. 이 대회는 한국기업인 현대자동차가 후원한다. 우즈는 "리비에라 골프장은 내가 16살 때 PGA 투어 데뷔전을 치른 곳"이라며 "다시 돌아와 경기하게 돼 흥분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